

## 제 6 강 언어와 인간

### ◆ 2교시 주체의 문제와 객체의 문제

#### ▲ 주체를 만드는 과정에 들어있는 한 추상적 단계

자, 그래서 계속 우리가 이 이야기를 진행해 볼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자연 단계에서의 자아 주체를 형성하는 과정, 그것을 통해서 이제 하나의 자아가 또 다른 자아를 만든다는 거, 우리가 똑같은 나지만, 내가 나로써의 나도 있고 상대적인 의미에서의 나가 있잖아요.

즉자가 있고, 대자가 있고, 그런 용어가 있잖아요. 그 단계는 동물들도 똑같이 공유하고 있는 그런 건데, 인간은 아까 이야기했듯, 변증법적인 인식의 단계에서 얘기했을 때의 변증법적인 추상화과정을 통해서 만들어내는 대상, 대상들끼리의 관계.

그런 것과 유사한 방법으로 또 추상적인 나, 자연적인 나가 아니라 추상적인 나, 그것을 다른 추상적인 나로 만들어내는 과정, 그러니까 유사한 과정이에요.

여기서는 시니피앙, 시니피에의 과정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여기서도 역시 다른 용어를 어떻게 붙이느냐에 따라서, 시니피앙 시니피에가 붙어에서 나온 말인 건 다 아시잖아요

붙어로 했을 때, 시니피앙 시니피에 한다는 건, 영어로 signify를 의미한다는, 시니피앙 하면, 현재분사로 뭐를 주체적으로 행한다는 의미죠, 반대로 시니피에 하면 과거분사로 그것을 당하는. 그러니까 의미를 부여하는 것과 의미를 당하는 대상 이 관계가 붙어에서는 시니피앙 시니피에란 거죠.

마찬가지로 똑같은 유사한 방법으로, 엔스튀튀앙 엔스튀튀에 이렇게 붙어로 하기도 하는데, 그거를 이제 주체를 구성하는 나와 주체로서 구성되는 나와의 관계 그렇게 설명할 수가 있어요. 사회학 강의가 아니기 때문에 그쪽으로 깊이 들어가 볼 필요는 없지만, 유사한 단계,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인간에게는 서로 중복되지 않는 별개의 능력이 따로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언어와 사회의 관계에 있어서 그런 얘기를 했었죠. 언어는 커뮤니케이션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도 있고 바로 그렇다면 그 언어를 사회학적인 분야의 하류분야라고 이야기 할 수도 있는.

그런 논쟁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아까 이야기했듯 베르그송이 얘기했던 모든 것이 다 이미지라고 했을 때 충돌할 수 있는, 그런 것과 똑같은 충돌이 벌어졌다는 거죠 다른 각도에서 말이죠. 그런 거를 분명히 구별할 수 있는 근거란 얘기에요.

그런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지난 시간에도, 임상학적인 예를 들어가면서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추상화된 첫 번째 자아, 즉자와 대자 사이에서의 그런 관계. 쓰는 사람에 따라서 물론 즉자와 대자를 다른 의미로 사용할 수도 있어요.

‘즉자와 대자를 그렇게 해석하는 게 아니다’라는 반박을 할 수도 있겠지만 그거는 아까 말했던 학제적인 의미에서의 대답이 될 수도 있으니까.

둘 사이에서의 관계란 것은 바로 그거예요. 인간의 단계에서는 나라고 하는 것이 아까 얘기했듯이 나로서의 나인데, 우리는 항상 그 다음에 연결이 되는 주체로서의 나, 그 나를 항상 우리가 주된 관심의 영역으로 그렇게 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유사한 이쪽에서도 객체1과 객체2의 관계에서도 항상 객체2를 중심에 두는 관계라고 할 수 있는데 그거를 우리가 조금 더 자세하게 얘기해본다면 말이죠.

객체1과 객체2의 관계가, 우리가 편하게 얘기해서 객체1과 객체2의 관계라고 얘기하는 건데 결국은 이것이 시니피앙과 시니피에의 관계라 할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소리와 관념의 관계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우리가 언어에 있어서 뭐를 더 중요한 대상이라고 보세요. 소리가 아니라 관념이라고 생각하시잖아요, 항상. 언어에서 중요한건 관념이지 소리가 아니라고.

그래서 철학자들이 관심을 가지고 다뤘던 분야도 관념의 세계를 다룬 거지 소리를 다루진 않았어요. 소리는 중요하지 않은 분야였어요. 그러니까 만드는 어떤 거는 중요한 게 아니라 될 만드느냐 하는 만드는 대상이 중요해진다는 거죠.

그거를 우리가 또 다른 차원에서 얘기를 한다면, 지표와 표상의 관계, 대상과 표상의 관계, 그 이야기를 했을 때 지난번에 제가, 지난 시간에 그런 얘길 했었죠. 창밖을 보면서 나무가 흔들거리는 걸 보면, 우리가 나무가 흔들거린다는, 나뭇가지가 흔들린다는 그런 걸로 보는 게 아니라 ‘바람이 심하게 분다’ 그런 걸로 봐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보이는 지표는 그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안에 숨어있는, 그것이 표상할 수 있는 다른, 또 다른 객체2 그게 항상 중요하다는 거죠. 항상 그런 식의 사고를 했었죠.

## ▲ 현상학적 전환

어떻게 보면 좀 단순화시킨 논리이긴 하지만, 그거를 이해를 하신다면 현상학적인 어떤 전환이라고 하는 것도 바로 여기에 있다고 할 수가 있어요. 현상학적인 전환이라는 것은, 어떤 보이는 현상을 가지고 그대로 하는 게 아니라

재해석을 통해서 재해석이 된 걸 가지고 뭔가를 항상 그렇게 하는데, 현상학적인 전환이라는 것은 있는 현상 자체를, 우리가 왜 무시를 하고 다른 걸 가지고 얘기를 하느냐는 거죠.

있는 현상 안에서 있는 본질을 그대로 보는, 그런 어떤, 단순화시켜서 얘기를 한다면 현상학적 전환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현상학적 전환이라 하는 것은 과거에, 다른 말로 바꿔서 한다면 그만큼 대상 자체가 아니라 대상이 다른 걸 끄집어내는 표상이라고 하는 걸 항상 거기에 중심을 두고 뭔가를 해왔기 때문에 전환이라고 한다는 거죠.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주체 사이에서 이야기를 하면, 처음에 주체라는 것은 나로서의 나예요. 우리가 즉자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지금 여기 있는 나, 모든 내가 나를 위해서인 나, 나인 내가 아니라 다른 뭔가 다른 역할을 해야 하는 나, 아빠로서의 나 혹은 아들이로서의 나, 혹은 한 시민으로서의 나, 어떤 선생으로서의 나, 아니면 뭐든 이런 거 있죠. 부인으로서의, 남편으로서의 나, 항상 대자적인 어떤 것이 중요시 되었죠. 항상 그렇게 되었죠.

구체적인 예를 들자면 우리는 항상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소아적인 그런 발상이라 비난받는 나를 항상 버려야 한다는, 뭐라고 할까요, 그런 걸 발견하게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어떤 전쟁이 났다, 그러면 나는 싸우기 싫어요. 나는 두렵고, 전쟁이 두렵고 죽음에 대한 공포도 있고, 싫은데, 한국 사람이기 때문에, 한국 사람이라면 한국문제에 내가 모른 채 할 순 없는 거 아니예요. 왜냐하면 한국이 전쟁이 났으니까, 그런데 나는 두려움이 있고 싸우기 싫고 공포가 있고 그러는데 둘 사이에 대립이 있는 거죠.

싸워야 하는 것과 싸우기 싫은 것과 대립에서 항상 우리는 싸우기 싫은 쪽으로 생각하면 비난을 받게 되어있어요. 싸우는 쪽은 추앙을 받게 되어있어요. 항상 그렇게 해왔었죠. 항상, 나라를 위해 싸워야 한다. 그러면 가치론적 차원으로 항상 판단이 위에 서 있는 거죠.

나는 아무리 힘들어도 한 가정의 가장이라면 돈을 벌어야 되요. 내가 힘들면 나는 하기 싫은데, 나로서의 내가 아니라 가장으로서의 내가 항상 중심이 되어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싫어서 안하는 거는, 비난은 받고, 거기에 대립관계인 반대쪽인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의 나, 그렇다면 가정을 책임져야 하는 거잖아요.

그런 것으로서의 내가 항상 중심이 되어있고 그래서 일을 해야 하는 거죠. 우리 노래 있잖아요. 아빠 힘내세요. 우리가 있잖아요. 이런 노래 있잖아요. 우리가 있으니까 해야 해요. 나는 개 때문에 힘든데, 나는 실제 개 때문에 힘든 건데, 그거는 비난받는 소리란 말이에요. 개가 있으니까 힘이 나야해요.

항상 뭐에 대한 뭐, 타자에 대한 나, 그게 항상 중심이 되는 거죠. 근데 이게 과거, 계속 우리가 인간문화가 그래왔었던 말이에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도대체 나는 뭐냐, 이거죠. 항상 한국 시민으로서의 나, 아빠로서의 나, 항상 어떤 선생으로서의 나고, 힘들어 죽겠

는데 선생이니까 뭐 해야 한다. 이런 거.

항상 그런 뭔가에 대한 대상으로서의 내가 중심이 되면 나는 뭐냐는 거죠. 도대체 자아가 없는 거 아니냐, 이런 회의를 갖게 되는 거죠. 대상으로서의 내가 아니라 나로서의 나는 그럼 어떻게 되는 거냐. 거기에 대한 근본적인 회의와 생각의 전환이 이루어지는 것이 실존주의라 할 수 있죠.

실존주의라는 것은 과거, 물론 실존주의란 말은 있어도 본질주의란 말은, ‘나는 실존주의자다’라는 철학자는 있어도 ‘나는 본질주의자다’라고 말하는 철학자는 없었어요. 그런 사조는 없는 거죠. 그이유가 다 본질주의니까, 본질주의라는 게 왜 만들어졌다면 상대적으로 실존주의라는 새로운 개념이 나오니까 만들어진 거죠.

실존주의를 제외한 그 이전의 모든 철학자들이 다 본질주의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본질이라고 하는 건 구체적인 나, 뒤에 대한 나. 다시 말하면 여기 있는 내가 아니라 누구의 아빠 누구의 아빠 어디의 시민 어디의 대표, 항상 그런 내가 중심이 되죠.

그게 본질이라고 한다면 그게 아니라 진짜 나, 몇십 년 전만해도 없었던 나 지금 있는 나, 몇십 년 후에 없어질 나, 그런 실제 나 그거를 중심으로 시작한 게 실존주의인 거죠. 그게 실존주의 전환이라 할 수 있는 거죠. 이게 바로 우연만은 아닐 거예요.

아까 얘기했던 인식론적 차원에서의 현상학적 전환, 그것이 객체 2중심의 사회에서 객체1의 중심의 사회라고 하면 혼동이 있을 여지가 있죠. 객체2의 중심이 되는 관점에서 객체1이 중심이 되는 관점으로 전이를 하겠다. 그것이 현상학적인 전환, 발상이죠. 마찬가지로 주체2의 관점에서 주체1의 관점으로 전환하려고 하는 거, 그것이 실존주의 전환이라고 할 수 있죠.

근데 우연이 아니잖아요. 현상학이라는 것과 실존주의라는 것은 묘하게 거의 비슷하게 사조가 맞아떨어져요. 똑같은 사조라고는 할 수 없지만, 대개의 경우는 현상학과 실존주의는 같이, 퍼지게 되고 같이 쇠퇴도 같이 하고 부흥도 같이하고 같이 나간다는 거죠. 그게 우연일까만은 볼 수가 없는, 이런 것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다는 거죠.

## ▲ 대립관계와 커뮤니케이션

이런 것처럼, 우리가 언어를 얘기하고 있는 시간이지만, 보다 근본적인 틀로서의 이런 바운드를 인식을 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주체1과 주체2사이에서의 물론 아까 얘기했던 동물적인 주체를 얘기하는 것이 아닌, 더 분석해 보자면 시니피앙과 시니피에에 해당하는, 그런 부정의 단계를 거쳐서 실제 인간으로서의 실존과, 또 인간으로서의 본질 그 둘 사이에서의 관계가 성립될 수 있죠.

이게 어떻게 보면 인문학적인 의미에서의 사회학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사회과학적 의미에서는, 사회과학이라는 것은 이미 정해진 사회를 분석하는 것이 바로 과학적 의미에서의 사회잖아요. 그게 아니라 인문학적인 의미에서의 사회학이란 것은 바로 이런 단계의 연구라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소위 실존주의니 본질주의니, 이런 의미에서의, 존재론 이런 것들은 사회학이 인문학적인 의미에서의 사회학의 전개과정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런 단계에서 바로 이 모든 것이 자와 타자 사이에서의 대립관계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 대립관계라는 것이, 뭐라고 할까요. 그냥 마냥 다르기만 하다면 대립이 없어요.

대립이란 게 뭐냐면 우리가 인식의 단계에서도 마찬가지였어요. 대립이란 건 공통점이 있기 때문에 대립하는 것이지 공통점이 없으면 대립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쉬운 예로 색깔대립을 예로 해도 생각할 수 있죠. 검은색과 흰색이 대비를 하잖아요.

물론 대립관계라고 얘기한다면 흰색과 검은색이 대립된다고 얘기를 많이 해요. 물론 물리학적 차원의 흰색과 검은색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물리학적 차원에서 보면 흰색과 검은색이 없어요.

그게 아니라 단순히 말해서 일상에서 받아들이 수 있는 흰색과 검은색은 대립관계에 흔히 봐요. 그냥 마냥 다르면 대립관계가 성립되지 않아요. 뭔가 근거가 있으니까 대립관계가 되죠. 어떤 근거에 의해서 둘이 다르다는 거죠. 대립이란 건 하양과만 되는 게 아니죠. 근거가 뭐냐에 따라 달리될 수도 있어요.

그런 예를 지난번에 설명했는지 모르겠는데, 이 검은색은 흰색과 대립되는 게 아니라 경우에 따라서 적색과도 대립이 되고, 그렇죠. 검은 색은 적색과도 대립이 되요. 적과 흑이라는 소설에서 보면 둘이 정확히 다른 거예요. 이번에는 빛의 양이 아니라 다른 근거에서 검은색과 적색이 대립이 되요.

그럼 적색은 무조건 흰색과 대비 되냐 그건 아니죠. 적색이란 건 파란색과 대립이 되죠. 경우에 따라서는. 빨강, 파랑 정치에서도 많이 쓰고 상징 색깔도 뭔가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파란색이 늘 빨강색과 대립이 되냐면 또 그렇지도 않아요.

경우에 따라서는 흰색이 다시 또 파랑색에 대립이 되요. 운동회에서 청군백군 나누는 게 그런 대립이죠. 둘 사이에서의 대립은 또 다른 근거에 두고 대립이 되는 거죠.

그럼 거의 항상, 그리고 마찬가지로 한 바퀴 또 돌아왔죠. 그러면 흰색은 늘 파란색과 대립되나요. 다시 검은색과도 대립이 되죠. 대립이란 건 어떤 근거에서 대립이 되요. 다시 말해 근거라는 건 공통점이 있다는 거예요. 빛이라는 거 혹은 계급이라는 거 아니면 어떤 운동에서의 뭐.

이런 공통된 어떤 장이 있지 않으면, 공통된 하나의 장이 있지 않으면 대립이란 말이 성립

이 될 수 없다는 거죠. 항상 뭔가가 공통된 무엇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공통 밖에 없으면 대립이 아닌 거죠. 대립이란 건 항상 큰 틀 안에서의 공통점 안에서 뭔가 특정한 하나의 점을 놓고 갈라진다는 의미에서 대립이 성립이 되요.

인식론적으로도 그렇죠. 존재론적으로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제가 지금 쓰는 존재론이란 말은 철학에서 쓰는 인식론과 존재론의 대립이 아니라 사회학적이 의미에서 존재론을 얘기하는 거예요. 존재론적 측면에서 보더라도 마찬가지로 대립이라고 하는 건, 나와 타자의 대립은 그냥 다르다는 것만으로는 대립이라고 할 수 없어요. 공통점이 있기 때문에 대립하는 거죠.

여야가 대립하는 건 둘 다 정치를 하기 때문에 하는 거지, 한 사람은 정치에 관심이 있고 한 사람은 정치에 관심이 없으면 대립할 이유가 없어요. 정치라는 공통된 장이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대립을 한다는 거죠. 그런데, 정치라는 장 안에서 공통점만 있다면 대립할 이유가 없죠. 일단 공통점을 전제로 하고 그 안에서 뭐가 달라지니까 대립을 하는 거죠.

모든 대립은 다 그런 데서 성립이 되요. 다르다는 얘기는 공통점을 전제로 하고 다른 것이 지 공통점이 없다면 무의미해요. 그래서 공통점을 찾아야 우리가 대립을 찾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돌맹이와 여자, 두 개를 대립시키면 무슨 대립관계가 성립할까요. 전혀 모르겠죠. 무슨 근거로 내가 돌맹이와 여자를 가만히 놓았는지 전혀 근거를 못 찾겠죠. 남자와 여자 그러면 근거가 있죠, 돌맹이와 모래. 그러면 근거가 있죠. 근데 돌맹이와 여자 무슨 근거로 나란히 놓았을까요.

공통점을 근거로 하지 않는다면 대립관계가 성립이 안돼요. 항상 존재론적 의미에서의 대립도, 마찬가지로 공통점과 다른 점을 같이 나누고 있기 때문에 두 개가 대립한다는 말을 하는 거죠. 그래서 커뮤니케이션이라고 하는 건 바로 그런 거예요. 커뮤니케이션이 왜있냐요. 뭔가가 같기 때문에 커뮤니케이션이 있는 거죠.

같은데 다른 게 있기 때문에 커뮤니케이션이 있는 거죠. 지금 우리가 한국말로 하고 있죠. 그 이야기는 우리는 공통점이 있기 때문에 지금 대화를 하는 거예요. 한국 사람이라는 공통점이 있잖아요.

같은 문화권에 있다는 공통점이 있기 때문에 대화를 하는 거죠. 그리고 같은 공통된 관심사가 있으니까 이 자리에서 대화를 하는 거죠. 아무 언어에 관심이 없는 사람은 이 자리에서 대화를 할 이유가 없죠.

그런데 제가 아는 모든 가치관과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가치관이 똑같다면 대화를 할 필요가 없어요. 뭐가 다르기 때문에 뭔가 다르다는 것을 서로 주고받고 하는 그게 커뮤니케이션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커뮤니케이션이라고 하는 것은 나와 타자 사이의, 공통점에도 불구하고 다른 대립이 있다는 어떤 차이점이 있다는 그런 걸 전제로 해 가지고 한다는 거죠.

그래서 가장 원초적인 차원에서 보자면 내가 인간이기 때문에 대화를 하는 거지, 내가 컵하고는 대화를 할 이유가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컵하고 나하고는 근본적으로, 가장 원초적으로 나는 주체이지만 컵은 주체가 아니에요. 그죠? 인식론적인 차원에서는 이것도 객체고 이것도 객체고 다 보이죠. 똑같이 인식이 되죠, 이것도 객체 이것도 객체가 될 수 있어요.

다시 말하면 나라고 하는 대상1이 컵이라고 하는 대상2로 전이가 될 수 있어요. 인식론적인 차원에서는. 그렇지만, 얼마든지 가능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제가 항상 컵만, 만나기만 하면 컵 이야기를 한다면 나중에 여러분은 저라는 사람을 떠올린다면 컵 밖에 떠오르는 게 없을 거예요. 이런 식으로 얼마든지 전이가 가능해요.

그런데 존재론적 차원에서는, 존재론이라는 말, 제가 아까 얘기했던 기존 철학에서의 넓은 의미에서의 존재론이 아니란 거 전제로 했었죠. 좀 전에 얘기했던 그런 의미에서의 존재론적 차원의 관계에서는 나하고 컵하고는 전혀 대화를 할 이유가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컵을 주체로 인식하지 않기 때문에 이걸 주체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 앉아계신 여러분은 내가 주체로 인식을 하기 때문에 대화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주체로 인식을 하지 못한다면, 제가 지난번에 소마soma라는 것 앞에다 접두어 아a-를 붙이면 왜, 부정한다는 그런 의미였잖아요.

'아소마', '아소마지'라는 병명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의 경우에는 주체에 대한 인식, 소위 이게 없는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앞에 사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화가 안 되는 거죠. 그 사람하고.

그러니까 앞에 있는 사람이 오브젝트로서 객체로서의 사람이라고는 인식하지만 주체로서의 사람이라는 건 내가 인정을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커뮤니케이션이 안 되죠. 많은 경우의 자폐증도 바로 여기에 해당이 돼요. 커뮤니케이션이 안 돼요.

왜냐하면 앞에 있는 사람을, 그 사람이라는 객체가 있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이 아니에요. 인식을 해요 객체로는 있는걸 알아요. 하지만 주체로서는 인식을 못하는 거예요. 주체로서 그러니까 대화가 안 되는 거죠.

반대로 아니면 또 다른 방향으로, 내가 컵을 주체로 인정한다는 거예요. 그럼 컵하고 대화를 할 수 있겠죠, 우리가 흔히 상상할 수 있잖아요. 어떤 사물을 대놓고 얘기하는 거, 그러니까 무슨 꼭 병뿐만 아니라 정상적인 두뇌를 가지고도 할 수 있어요.

상대방을 주체화시키는 거죠. 우리가 얼마든지 왜 동물하고 대화를 하시잖아요. 그건 우리의 머리가 이상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의인화시키는 거죠. 사람이라고, 다시 말하면 오브젝트가 아니라 서브젝트로서 인정을 해 준다는 거죠.

개가 알아들어서가 아니라, 개한테 얘기하면 개가 알아들을 거라고 생각하나요? 그건 아니

죠. 못 알아듣는 걸 알지만 우리가 해주는 거죠. 사물하고도 마찬가지로.

그렇지만 이게 어떤 병적인 차원에서라면 문제가 달라지는 거죠. 이 앞에 아무도 없는데도 혼자 얘기할 수 있어요. 혼자 그냥 얘기하는 거죠. 제가 보통 지금의 두뇌 구조를 가지고서는 이 방안에 아무도 없는데 혼자 세 시간을 얘기하라면 못해요. 못하죠. 어떻게 해요. 그런데 그런 정신구조를 지니면 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앞에 주체가 있으니까, 모두 주체가 되는 거죠. 그럼 나는 세 시간이고 네 시간이고 대화를 할 수 있어요. 그런 문제들이 전부 소마에서 비롯되어 나온, 모든 사회학적인 혹은 존재론적인 문제라는 거죠.

커뮤니케이션이 바로 그 문제가 그렇다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객체를 인식한다는 차원에서 언어, 그런데 지금 커뮤니케이션이란 건 전혀 관계가 없는 부분이죠. 그럼 이 모순을 어떻게 설명하는가 하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그럼 커뮤니케이션이 언어가 아니네요, 그렇게 되는 거죠.

#### ▲ 학제적 대립

이 문제를 어떻게 해석을 해야 하나, 그리고 아까 학제라는 개념을 봤었잖아요. 학제란 뭔가요. 학제란 것도, 결국 자아와 타자간의 대립관계에서 나온 그런 것이지 우리가 아까 예를 들어 봤던 것처럼, 학문적인, 말하자면 대상 객체 오브젝트로서의 학문 대상을 놓고 체계가 만들어지고, 대립이 되고 구별이 되고, 합치가 되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

주체로서의 우리 그룹, 우리 그룹이라고 하는 것과 저쪽의 그룹이라는 것이, 물론 공통점이 있어야죠. 예를 들어 우리 그룹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학과 어떤 학자들 집단인데 저쪽은 축구선수예요.

그럼 축구선수하고 무슨 아날학과하고 대립할 일은 없잖아요. 왜냐하면 공통점이 없으니까. 그런데 무슨 학과하고 무슨 학과가 대립이 되는 거는 바로 그 공통점이 있기 때문에 대립이 되는 거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같은 학과 내에서는 대립이 없겠죠. 물론 작은 대립이 또 있을 수 있겠지만 어떤 큰 대립이 없단 말이에요. 저쪽 학과는 차이점이 있기 때문에 대립을 한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어떤 저쪽과 우리가 주체로서 다르다는 그런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그런 대비를 한다는 거죠. 이게 바로 학제적 대립이죠.

물론 우리가 이렇게 반론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건 학문적인 대상 뭔가 내용물이 다르니까 대립을 하는 것이지, 무슨 인간이 달라서 대립하는 게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반론할 수도 있지만, 물론 대부분의 경우는 그래요.



그렇지만 모든 것을 다 글로벌하게 묶어서 설명할 수 있는 근본적인 대립의 문제는, 자아와 타아에서의, 자아와 타자 사이에서의 그런 대립에서 나오는 문제가 더 글로벌하게, 크게 설명을 할 수 있는 문제이지.

세부적인, 내용물을 가지고의 대립만을 가지고 한다면 학파라고 하는, 다시 말하면 그룹이라고 하는 자체가 성립이 되지 않아요. 그룹이 성립이 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거든요.

생각해 보시면 어떤 학파가 형성이 된다는 건 나하고 누구하고 어떤 공유가 되는 뭔가가 있기 때문에 하나가 되는 거죠. 다시 말하면 주체의 문제로 돌아와서 너하고 내가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거. 다시 말하면 인간의 문제예요. 객체의 문제가 아니라 주체의 문제예요. 서브젝트의 문제란 거죠.

그래서 형성되는 게 학파지, 그렇기 때문에 이미 학파를 구성한다는 것 자체가 학제적 대비를 위한 기본전제로 성립을 해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이유에서건 간에, 학제적 대립이라는 건 학문, 내용을 가지고 대립하는 게 아니라 자아와 타아 사이의 주체들 사이의 대립관계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과학을 가지고 설명하는 것도,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과학이론, 과학철학이라고도 흔히 부르죠, 다른 말로 인식론이라고도 하는데, 이 이야기도 얼마 전에 했었을 거예요.

그때는 그게 무슨 말인가 하셨을 분도 있을 텐데, 같은 에피스테몰로지를 가지고 서로 다른 이야기를 하는 두 가지가 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우리가 인식을 할 수 있는가 어떻게 인식을 할 것인가 하는 문제, 인간이 인식을 어떻게 하는 문제, 그런 걸 에피스테몰로지라고 하고 한국말로 인식론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런 차원에서의 문제라면 그것은 이쪽 차원에서 썼던, 여러분이 보시기에 왼쪽에 썼던, 그런 차원에서의 학문인 거죠. 예를 들자면 칼 포퍼가 전개했던 과학이론 있잖아요. 어떤 것이 과학이냐. 어떤 것이 형이상학이냐, 형이상학하고 과학이 뭐가 다르냐,

말하자면 인식의 방법이 다르다는, 어떤 식으로, 다시 말하면 변별성이, 다른 말로 한다면 논박가능성이 있느냐 없느냐 이런 걸 가지고 과학이다 아니다 애길 했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가 있나요. 제가 이제 과학적인 발언을 한다면, '내일 오후 1시의 온도는 영상 5도가 된다'라고 제가 이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럼 제가 이제 과학자로서의 자질을 갖춘 거예요. 과학적인 이야기를 한 거죠. 내일 오후 1시에 온도계를 재보면 되니까 그럼 틀렸다 맞았다가 나오겠죠.

틀려도, 맞아도 저는 과학자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얘기를 안 하고, 내일 오후 1시의 기온이 영상 5도이거나, 아니면 그 밖에 다른 온도가 될 수 있다고 한다면, 내일 오후 한시의 온도를 재보면 어떤 온도가 나오건 간에 저는 항상 진리를 말한 거죠. 저는 항상 피

해갈 수 있어요.

내가 다른 것도 될 수 있다고 하지 않았느냐, 내일 한시에 재봤더니 영상 5도가 아니에요. 당신 틀렸잖아, 내가 그렇게 될 수도 있다고 했지 언제 항상 그렇다고 했느냐. 항상 빠져나갈 수가 있는 거죠.

그거를 포퍼 입장에서는 그거는 과학이 아니다, 검증할 수 없다면, 반박을 할 수 없다면 그건 과학이 아니다, 라고 애길 하잖아요. 그런 식으로 해서 성립이 된다, 이런 식의 과학이론을 전개를 한다면, 그거는 우리가 인식을 어떻게 하느냐 그런 문제를 가지고 하는 거죠.

그런데 또 다른, 토마스 쿤, 우리가 흔히 과학철학을 얘기할 때 두 사람을 언급을 많이 해요. 칼 포퍼, 토마스 쿤, 그 이외에도 라카토스 다른 이야기들을 많이 하지만, 토마스 쿤 같은 사람은, 근본적으로 다른 이야기를 해요.

어떤 과학 패러다임이 만들어져서, 그것이 전성기를 누리다가 그것이 어떤 이상 징후가 발견이 돼서 흔들흔들하게 됐을 때 다른 새로운 패러다임이 나와서, 그 패러다임이 이 과학을, 기존에 있었던 체계를 무너뜨리고 새롭게 떠오른다는 거죠.

그러면 그것이 다시 또 전성기를 누리다가 또 다른 이상 징후가 발견이 돼서 또 다른 패러다임에 의해서 정복이 되고, 이런 식의 대립관계, 그거는 한 과학 집단의, 다시 말하면 학제적 의미에서의 집단의 발현과 성장과 쇠퇴, 이런 과정. 다시 말하면 그거는 과학사회학이라고 할 수 있는, 말하자면 존재론적 차원의 설명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깐 우리가 과학철학을 이야기할 때 두 명을 언급을 하는 두 사람의 경우를 보더라도 분명히 근본적으로 서로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것처럼 우리가 그노시스라고 하는, 인간의 두뇌활동과 소마라고 하는, 인간의 두뇌활동이라고 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서로 다른 이야기인데 그거를 우리가 자꾸 중복을 해가지고, 그러다보니까 이상한, 쓸데없는 논쟁을 하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항상 이 두 가지는 분명히 구별을 해줘야 해요. 그래서 어느 학문을 하던 간에.

## ▲ 실증주의

이렇게 이제 학문이 전개되는 것은 어떻게 보면 포지티브리즘이죠, 실증주의의 영향이 굉장히 커요. 실증주의가, 물론 실증주의라는 특정 사조가 없었다는, 그런 게 없으리라는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없지만.

어쨌든 실증주의란 이름으로 사조가 있었기 때문에 그 이름을 두고 우리가 대표성을 부여를 하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지만, 그 실증주의라고 하는 사조가 바로 여기에 대한 책임이 굉장히 크다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모든 인문학은 항상 이렇게, 뭐라고 할까요, 사회학적인, 역사적인, 시간을 두고 어떤 특정한 영역에서의, 어떤 그런 식으로 설명을 해왔기 때문에, 왜냐하면 그랬잖아요. 인문학이라고 하는 것이 곧 사회학이라고 하는 그런 게 바로 그런 발상에서 나온 거죠. 실증적이란 말이 어떤 의미냐면은 바로 다른 의미가 아니라 역사한다는 거죠.

시공을 두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시공을 두고 있어야 뭐가 있다고 할 수 있는 거고 그래서 그게 실증한다는 거고 인간한테 그래야 한다는 거죠. 그게 바로 실증주의를 한마디로 표현할 수 있는 관점인데, 그게 뭐라고 할까요. 인문학의 과학화라는 이름으로 만들어졌던 발상이란 말이에요.

결국 그런 것들이 항상 시공으로, 역사화했을 때만이 그 실증된다는 그런, 예를 들어 아까 우리가 문학을 예로 들었을 때, 문학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문학을 한다는 것은 항상 뭐를 생각하면 어디 문학이요, 몇 세기 문학이요, 이것부터 생각을 해요. 항상 시공을 전제로 해야만이 인식이 된다는 거죠.

그게 바로 결국에는 실증주의적 사고가 지배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여전히 계속 지배하고 있어요. 마찬가지로. 아까 언어학도 마찬가지로 철학한다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철학한다고 하면 뭐부터 질문하세요, 어떤, 누구하세요, 이런 질문부터 하죠. 몇 세기 철학하세요.

이런 항상 시공을 전제로 하는 역사화된, 그런 것만이 우리가 인식이 되는, 항상 그 학제적인 사회학적인 그런 전제를 두고만이 어떤 인식을 할 수 있는 그런 게 완전히 져어있어요, 우리가.

언어도 예외가 아니에요 언어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언어를 우리가 한다고 했을 때, 분명히 주의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언어를 연구한다고 하면은 물론 특정 언어를 예를 들어가면서 할 수 밖에 없어요.

물론. 예를 들면 언어에서 시니피앙, 시니피에, 지난 시간에도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그럼 시니피앙이라면 도대체 뭐냐 어떤 추상적인 의미만을 던져줄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예를 들어주어야 하잖아요.

대립한다면 뭐가 대립하느냐 그러면은 실제적인 예를 들어줘야 하잖아요. 그러면 제가 한국 말에서 예를 들어 뭘 해줘야 되잖아요. 아니면 불어에서 예를. 이런 식으로 그런 예를 들자면 결국 시공을 두고 있는, 다시 말하면 한반도에서 주로 말해지고 있는, 20세기에서 주로 말해지고 있는. 어떤 시공을 전제로 하고 어떤 구체적인, 실증적 예를 들 수밖에 없어요.

## ▲ 언어의 사회화

그렇지만 그 자체가, 그 언어학의 대상이 그러면 왜야 되는가 하는 건 또 다른 문제란 말이

죠.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듯 언어라고 하는 것의 본질은 뭐였어요. 어떤 대상을 그대로 인식하느냐.

아니죠. 그대로 인식하는 게 아니라 시리즈의 관계, 다시 말하면 대상1이 대상2를, 어떤 연상시키는, 그런데 그것도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추상적인 단계를 통해 가지고 하는.

그리고 대립관계라는 것은 지난번에 시니피앙 시니피에 대립은 두 면이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다. 이 두 면이라고 하는 이야기는 소쉬르부터 하면 양면이라고, 동전의 양면과 같다 이런데서 나오는 표현이에요.

꼭 동전의 양면이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다른 예를 할 수 있어요. 하나의 표현일 뿐이고. 두면, 페이스라고 우리가 흔히 비유를 많이 해요, 주로 시니피앙, 시니피에. 그 두 면뿐만이 아니라 그 다음에는 퀄리티와 퀀티티의 문제, 그거에 대한 대립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인식을 한다는 것이 퀄리티를 인식한다는 건지, 퀀티티를 인식한다는 건지, 그 얘기를 했었죠, 제가. 그거는 하나의 축의 개념으로, 진짜 머릿속에서 축처럼 있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비유를 하자면 그런 개념으로 우리가 설명을 할 수가 있었잖아요.

그 둘 사이에서, 저 And의 논리와 Or의 논리가 다시 결합이 돼가지고 우리가 인식을 한다는 얘기를 했었죠, 제가.

그 다음에 어떤 얘길 했었나요. 변증법적인 부정의 부정을 거쳐서 하는, 지난 시간에 얘기했었나요, 제가. 이번에는 축이라는 개념을 말하지 말고, 극이라고 할까요. 어떤 양극. 이쪽 극과 이쪽 극 사이에서의 대립, 그 다음으로 나가는. 그런 개념으로 설명을 하면, 어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우리가 인식을 하는 어떤 과정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언어라고 하는 것이 본질적으로 거기에 근거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언어의 본질이 어디에 있느냐 하는 것이, 언어가 뭔가요, 뭔가를 개념, 우리가 보이는 어떤 뭔가를 개념화시키는 그게 언어잖아요. 보이는 것, 들리는 것, 뭐 이런 것들. 개념화시키는. 그게 뭘 통해서요. 시니피앙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그걸 우리가 소리라고 했지만 다시 제가 아까 얘기했죠. 다시 얘기를 드린다면 소리가 아니라, 소리가 아니에요.

여기서 제가 소리라고 쓴 이유는, 주로 인간이 가장 쉽게 시니피앙화시킬 수 있는 것이 소리라는 소재를 가지고 할 수 있다는 게 가장 쉽다는 것이지, 소리만이 아니에요. 소리 말고 다른 손짓으로도 할 수 있어요. 다시 말하면 음향이 아닌 영상으로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과정을 통해가지고 관념화시키는 것, 이것이 이제 언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능력이 어디에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보면 뇌의 어느 영역에서 관여를 한다, 관장을 한다, 이런 것이 이제 과학적으로도 이제 밝혀졌고, 그 부분에 손상이 오면 꼭 이 사

람은 저 분별을 못하더라, ‘베르니케 실어증’라고 했죠.

아니면 꼭 다른 이 부분에 손상이 오면 그 사람은 합치지를 못하더라, 붙이지를 못하더라, 다시 말해서 구성, 구별은 할 줄 아는데 구성을 할 줄을 모르더라. 우리가 두 개가 분명히 다른 영역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각자 생각해 보셔도 알 거예요.

각자의 능력을 우리가 스스로 판단해 보세요. 아 나는 참 만드는 건 잘해. 그런데 새로운 창조력이 없어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내가 창조성은 참 있는데 뭔가 구성을 못해, 만들질 못해 이런 사람도 있을 거예요.

예를 들어 어떤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발상은 참 뛰어나요. 기발해요, 발상은. 그런데 그걸 뭔가로 만들지를 못해요. 결과로 만들지를 못해요. 반면에 어떤 사람은 뭔가를 만들어내는 건 참 잘해요. 그런데 차이점은 없이 똑같아요. 옛날에 다른 사람이 한 거랑.

다시 말해서 창조성, 구성력 이 두 가지가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이게 바로 퀄리티의 능력과 퀀티티의 문제, 능력 이 두 가지가 서로 다르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쨌든 이런 영역을 가지고 뭔가를 가지고 두뇌의 활동을 하는 것, 이게 바로 논리라는 것이고 이게 언어능력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물론, 이 모든 것을 뭘로 할까요. 뭔가 있어야 할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걸 뭘로 할까요. 그거를 다시 말하면, 이게 시공화 돼야 우리가 뭘을 전달을 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내가 예를 들어서, 지금 여러분과 대화를 해야 되겠는데, 뭘 시공화시켜야 뭘 할 거 아니에요.

지금, 여기서, 그러니까 뭔가를 만들어야죠. 소리를 만들더라도, 여러분들이 들을 수 있는 소리를 만들어야 되는 거고. 관념화시키는 것도 여러분이 이해 가능한 관념을 만들어야 되는 것이고. 아무도 이해 못하는 나 혼자 관념 만들어가지고는.

그러니까 그런 어떤 구체화된, 실증화 된 뭔가가 만들어져야, 그러니까 그거를 사회화시킨다는 그런 차원에서 바로 소마와 만나게 되는 거죠. 두 능력이 서로 겹쳐서 만나게 된다는 것.

그러니까 머릿속에서 두 개가 서로 따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근본적인 능력은 두 개가 별개, 따로 있는 것 이원화 되어 있는 거죠. 그렇지만 이게 이제 실제로 맞물려서 굴러갈 때, 두 개가 만나가지고, 언어가 사회화되는 거죠.

#### ▲ 글로소glosso와 소시오socio

그러니까 이런 것이 이제 말하자면 두 영역이 이제 만나서, 하나가 되는 그런 건데, 그게 이제 보통 우리가 이제 표현할 수 있는, 뭐라 할까요. 굳이 우리가 갖다 붙이자면은, 제가

그때 글로세마티크라는 말을 썼을 거예요. 엘름슬레우의 용어라고 하면서, 거기서 말하는 글로쏘(glossos)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말이라는 거죠.

언어라고 하는. 그런 거를 어떻게 이거를 사회화시키느냐, 노모스(nomos)라는 그런 단어가 하나 있죠. 그래서 생소한 용어를 쓰면은 뭐라고 할까요, 좀 이렇게 혼동을 불러일으킬 수가 있는데, 그 용어 자체가 중요한 건 아니구요, 용어는 어찌됐든 간에 상관은 없어요.

그런데, 글로쏘라고 하는 거, 글로쏘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희랍어에서, 영어에서 'tongue' 있죠, 혀. 그거랑 똑같은 뜻이에요 말이란 말이에요 말. 노모스라는 말. 자 이거를 잠시 다시 써볼게요. 글로쏘라는 말과, 소시오(socio)라는 말로 대립을 하잖아요. 소시오는 소셜(social) 이런 거 있잖아요.

여기서 또 하나가 이거는 결국 로고스(logos)의 문제죠, 로고스의 문제고. 여기선 노모스의 문제, 노모스라고 하는 것이 희랍에서 뭐냐면 노모스는 법률화시킨다는 의미죠. 어떤 제정, 정한다는 그런 노모스라고 하는. 그러니까 넓게 보면, 소시오나 노모스나 소시오가 있으니까 노모스가 생기는 거죠.

마찬가지로 이쪽에서도 글로쏘라고 하는 것은 말, 개념, 관념화시키는, 그게 있으니까 로고스가 있는 거죠. 결국 같은 영역에서, 그래서 이거 두 개가 결합이 되는 경우가 많죠.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이쪽의 능력과 이쪽의 능력이 서로 결합이 되요.

그러면서 실제, 따로따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같이,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결합이 된다는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말이라고 하는 것이 역사화된다는 거죠. 시공을 가지고 구체화된다는 거죠. 그렇게 됐을 때 글로서, 노모스라고 하는 것이 성립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럼 다시 말하면 뭐냐면 내가 논리를 공유한다는 얘기에요. 각자 논리가 있으시잖아요. 그럼 거기서 각자의 논리, 가지고 있는 논리가 어떻게 될까요. 구체적으로 여기에 있는 이 사람하고 나하고, 뭔가가 같이 공유가 되려면 뭔가가 대화가 돼야 되는 거고. 그러면 뭔가 공통적인 코드를 만들어야 되는 거겠죠.

codify라고 하는 뭔가가 돼야 되겠죠. 영어로 codify하면 글로 만드는 그런 의미가 되는데 꼭 글로 한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코드화시킨다는, 그 사람과, 상대방과 나의 사이에서 공통적인 뭔가를 찾아지고 만들어야 한다는. 그러니까 한국말이 만들어지는 거죠.

내가 코드를 통일시켜야 여러분들하고 대화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한국말이 만들어지는 것이고, 또 마찬가지로 더 기본적인 단계에서는 그런 것이죠. 더 넓게 나간다면 내가 어떤 뭐라고 할까요, 뭔가가 만들어져야, 공통된 어떤 사고체계가 만들어져야, 그 안에서 그 사람과 다른 사람하고 사고체계를 공유할 거 아니에요.

한마디로 말해서 이데올로기라고 하는 그런 것들. 그렇죠. 하나의 사고체계. 그런데 보통 우리가 다른 차원, 이데올로기와 에피스테몰로지를 대립시키기도 하는데, 어떤 근거에선 이데

올로기라고 하는 것은 어떤 한 체계가 딱 정해져 있으면 그 안에서 공유하는 거죠. 이걸 바꾸면 안 되는 거죠 딱 정해져있는 그 안에서, 다시 말하면 공통점이 있다는 거죠.

그런 걸 했을 때 이데올로기라고 한다면 에피스테몰로지는 그런 게 아니라 차이점을 얘기하는 거죠. 저 사람하고 이 사람하고는 다르다는, 아까 토마스 쿤의 입장에서 얘기했던 그런 의미에서의 에피스테몰로지.

여기서의 에피스테몰로지는 그걸 얘기하는 거죠. 다르다는 거죠. 재하고 나하고는 다르기 때문에 뭔가가 이상하다. 충돌이 있다. 그런 의미에서 에피스테몰로지와 이데올로기는 서로 대비가 되는 문제예요.

서로 다른 문제죠. 뭐가 다르냐면 이데올로기는 그 정해져 있는 체계 안에서 같은 거예요. 이걸 다르면 안 돼요. 같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뭐라고 할까요. 지식체계 안에서의 보수화에 (가깝죠) 같아야 돼요. 다르면 안 돼요. 바꾸면 안 돼요. 있는 체계 그게 고수가 돼야 해요.

반면에 에피스테몰로지라고 하는 것은 이 지식체계로서의 진보논리예요. 그대로 놔두면 안 돼요. 뭔가가 위기가 오면 바뀌야 하는 거죠. 항상 뭔가, 새로운 게 바뀌어야 되는 거고, 그걸 가만 놔두면 안 된다는 거죠.

이상 징후가 있을 때 이걸 바뀌야 돼요. 이상 징후가 없을 수는 없죠. 이상 징후는 항상 있어요. 그럼 이 징후가 있을 때, 그러면 그걸 놔둬도 되면 그건 이데올로기예요.

반면에 이상 징후가 있을 때 ‘아니야 이걸 바뀌야 돼’ 그것이 에피스테몰로지죠. 그런 차원에서, 지식차원에서 이 두 가지가 서로 대립이 되는. 어쨌든 이데올로기건 에피스테몰로지건 간에, 다 커뮤니케이션의 문제란 말이에요. 지금 저하고 여러분하고, 지금 제가 이야기를 하면 무슨 말인지 많이 알아들으시죠.

반면에 100% 알아들으시진 못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커뮤니케이션할 필요가 없는 거죠. 내가 아 하면 바로 아 알아듣고 어 하면 바로 어 알아듣고 그건 커뮤니케이션이 아니예요. 항상 뭔가가 알아듣는 듯 하면서도 못 알아듣는 갈등구조 이게 사회란 말이에요. 이데올로기와 에피스테몰로지가 넓은 의미에서 보자면, 그게 넓은 의미에서 사회란 말이에요.

좌파와 우파가 서로 좋아하는 듯하다가 대립하는 듯하다가 왔다갔다 이게 사회란 말이죠. 그게 바로 커뮤니케이션이란 얘기에요. 그게 바로 이 글로썬과 노모스가 이제 결합되는 그 형태란 말이죠.

반면에 다른 쪽으로 우리가 보자면 말이에요. 그럼 이렇게 볼까요. 이렇게 소시오를 로고스 시킨다면 뭐가 될까요. 사회라는 것을 이번엔 어떻게 할까, 다시 말하면 이런 현상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걸 우리가 한번 알아보자는 거죠. 관념화 시키자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글로쓰라고 하는 것을 역사화시키자’라고 하는 것이 방금 얘기했던 그런 문제라면 사회라고 하는 것을 개념화시켜보자. 그게 소시오, 로고스라고 하는 거죠. 그게 바로 우리가 말하는 소시올로지예요. 소시올로지는 뭐냐면 사회라고 하는 현상을 우리가 보이잖아요.

다시 말하면 이 소마로서의 주체로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주체와 주체 사이 우리가 보이잖아요. 뭔가, 우리가 사회가 구성이 되면 뭔가 보이죠. 이거는 우리가 주체로서 인식을 하는 게 아니라 객체로서 인식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뭐하고 있는 거죠. 보이는 거죠, 이게.

다시 말하면 우리가 붕 떠가지고 나를 보는 거예요. 뭐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우리 사회를 주체로서 보는 게 아니라 객체로서 보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게 왜 이렇게 돌아갈까 보는 거죠. 다시 말하면 대상으로서 보는 거예요. 그게 바로 소시올로지예요. 사회학이란 거죠.

그러니까 서로가 엇갈리는 두 방향으로 서로 따라간다는 거죠. 바로 이게 언어와 사회 사이에서의 서로 엇갈리면서 상호작용하는 그런 두 인간의 문화 활동이라는 거죠.